

聖과 俗의 境界, 『三國遺事』의 ‘신발 한 짝’

이강엽*

〈차례〉

1. 문제의 제기
2. 신데렐라, 관음, ‘신발 한 짝’
3. 『三國遺事』 ‘신발 한 짝’의 聖과 俗
4. 마무리

〈국문요약〉

이 글은 聖과 俗의 境界라는 관점에서, 『三國遺事』의 몇몇 설화에 등장하는 ‘신발 한 짝’의 의미를 탐구하였다. 이는 그간 신발을 신발 주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식해오던 한계를 넘어 주제적인 국면까지의 해명을 시도한 것이다.

첫째, ‘신발 한 짝’의 신화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신발 한 짝이 이른바 ‘신데렐라型’ 이야기에서 한쪽 신발은 이쪽 세계에 한쪽 신발은 저쪽 세계에 둬으로써 그 주인이 양쪽에 걸쳐진 존재를 표상하며, 우리 불교설화에서는 ‘관음’이라는 상징을 통해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고 위로는 부처의 깨침을 추구하는 중간자적 존재로 드러날 때 신발 한 짝이나 버선 한 짝 같은 식의 상징물이 사용되었다.

둘째, 『삼국유사』에서 신발 한 짝이 나오는 자료를 살폈다. 「塔像」편의 <南白月二聖努盼夫得怛怛朴朴>,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 「義解」 편

* 대구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二惠同塵>, 『感通』편의 <郁面婢念佛西昇> 등 네 자료에 드러나는데, 이들은 모두 신발 한 짝으로 두 세계에 걸쳐있는 인물, 혹은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이동하는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준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각 작품의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다. <南白月二聖努盼夫得怛怛朴朴>은 신발이 옮겨간 방향이 신라에서 중국이 되게 함으로써 신라를 불법 전파의 聖地로 귀결시킨다.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에서는 신발 한 짝은 塵世에 둔 채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끌고 淨土에 坐定하는 서사를 통해 관음이 塵世와 淨土에 걸쳐있는 존재임을 드러낸다. 또, <二惠同塵>은 신발 한 짝은 동쪽 언덕에 남긴 채 다른 한 짝은 서방으로 가는 모습을 그려서 和光同塵을 극적으로 구현해낸다. <郁面婢念佛西昇>은 신발을 떨구고 육신마저 떨어진 후 완벽한 해탈을 이루는 서사로 귀결되었다.

신발이 한 짝으로만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나머지 한쪽과의 통합을 갈구하면서 양자 사이의 불균등을 해소하여 위아래 구분 없이 평등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이런 이야기들의 핵심 주제이다. 신발 한 짝이 등장하는 설화는 곧 聖과 俗, 未覺과 覺, 輪廻와 解脫의 경계에서 그 둘이 어떻게 중개되며 궁극적으로 하나로 통합되는지 밝혀내는 서사인 것이다.

주제어: 신발 한 짝, 삼국유사, 신화, 신데렐라, 관음, 聖, 俗, 중개

1. 문제의 제기

『三國遺事』는 우리 이야기문학의 寶庫다. 특히 『紀異』편에는 우리 신화의 중요한 자료들이 대거 수록되어 있어서 관심을 끌며, 나머지 편들에서도 신화적 편린을 지닌 이야기나 전설·민담 등이 산견된다. 물론 이야기를 신화와 전설·민담, 혹은 신화·전설과 민담 등으로 양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계가 聖에서 俗으로 옮겨가는 양상인 데 대해서는 異論을 제기하기 어렵다. 『紀異』편에서는 그 등장인물부터 하늘이나 먼

바다에서 옮겨온 초월적 존재이거나, 인간의 외형을 지녔어도 하늘에서부터 특별한 기운을 받은 영웅적 비범성을 지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때 「興法」이나 「塔像」, 「感通」 편에 실린 이야기들은 「紀異」 편에 비해 속화된 이야기임이 분명하지만, 불교적 견지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이 편들에서 ‘聖’ 혹은 ‘聖人’이라고 할 때는 대체로 보살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觀音, 正趣, 文殊 등의 여러 보살들이 등장하곤 한다. 대승불교에서 보살이란 본시 부처를 侍衛하면서 돕는 존재로 여겨진다. 부처가 완전한 깨침을 얻은 절대자라고 한다면 보살은 그런 완전한 깨침을 얻은 자와 그렇지 못한 중생 사이에 놓인 중간자라고 할 수 있다. 즉 보살은 깨칠 수 있는 존재이지만 깨치지 못한 중생을 깨쳐주기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존재이며, 완전한 깨침을 얻은 부처를 도움으로써 중생을 깨칠 기회를 넓혀주는 기능을 하는데, 아미타불을 挾侍하는 관음보살과 정취보살이 그 대표이다.

실제 『삼국유사』에서도 보살을 ‘聖’으로 명명하여, 그 제목부터 <南白月二聖努盼夫得怛怛朴朴>,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 <憬興遇聖>으로 쓴 예가 보인다. 인간이 聖을 體現함으로써 속된 존재에서 성스러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은 신화의 핵심 기능이자 원리이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하고 미천하고 속되기에 완전하며 고귀하고 성스러운 존재로의 변이가 일어나려면 만만치 않은 고난과 역경을 거쳐야만 한다. 물론 이상적으로야 어느 한 순간의 깨침을 통해 질적 비약을 하며 순간 이동의 쾌거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이쪽[此岸]에서 저쪽[彼岸]으로 이동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내적 변화를 수반하며 그러한 변화과정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신기하게도 『삼국유사』에는 그런 흔적으로 ‘신발 한 짝’이 남은 예가 여러 군데 보인다.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 여느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사라진 곳이 바로 보살의 불상이 있는 곳이며 거기에 신발 한 짝만 남았더라는 식의 이야기가 거듭 보이는 것이다.

‘신발 한 짝’은 신데렐라형 이야기로 통칭되는 이야기群이나 高僧譚 등에서 상투적으로 보이는 소재이다. 왕자와 무도회에서 춤을 추다가 시

간이 늦어 급히 나오느라 신발 한 짝을 떨어뜨리며, 그 신발을 단서로 해서 왕자를 다시 만나 결혼하게 되는 신데렐라 이야기는 세계 여러 곳에서 두루 발견된다. 또한 달마대사의 手携隻履 같은 高僧 이야기에서도 신발 한 짝을 남겨두고 한 짝만을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이야기는 아주 흔하다. 그런데 그 단서가 하필이면 ‘신발’이며, 꼭 ‘한 짝’이어야 하는지는 설명되기 어려웠다. 그저 신발이 한 켤레로만 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한 짝씩을 가진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될 符節 같은 기능을 했다고 짐작해볼 정도였다.¹⁾ 그러나 헤어진 후 후일의 재회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너무도 많은 물건들이 그런 기능을 할 것이다. 이를테면 <동명왕편>의 ‘부러진 검’처럼 자신이 가진 물건을 얼마든지 그 역할을 대신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 한 짝이 강조되는 이유는 그 인물이 신발을 신고 이쪽과 저쪽을 왕래하는 과정에서 한 짝을 남김으로써 사실은 그 인물이 양쪽에 걸쳐 있는, 매개자 내지는 중간자의 구실을 하는 표지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²⁾

이 글은 이러한 신화적 맥락에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발 한 짝을 추적하여, 그 상징적 의미를 추적하려 한다. 먼저 세계 신화에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신발 한 짝’의 의미를 추적하여 논의의 발판을 마련한 후, 『삼국유사』의 자료를 검토해나가는 순서를 취하는데, 이를 통해 聖과 俗, 未覺과 覺, 輪廻와 解脫의 경계에서 그 둘이 어떻게 중개되며 궁극적으로 그 하나로 통합되는지 밝힘으로써, 해당 텍스트의 신화적 해명에 이를 것으

-
- 1) 신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김열규 등에 의해 다각도로 이루어졌지만 그 呪力이나 性的 상징 등에 대해 집중된 편이었고, 그 상징적 의미를 다룬 남정희(2009)에서조차 ‘신원 확인의 도구’ 정도라면 논의될 뿐이어서 그를 통해 주제적 국면으로 나아가는 데 소홀했다.(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1, 100~102면; 남정희, 『신 한 짝의 상징적 의미』, 『반교어문연구』 27집, 반교어문학회, 2009) 또, 최정선은 관음설화에서 신발을 관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매개물로 보았다. 최정선, 『관음설화의 여성화 전략과 형상화의 의미』, 『인간연구』 10호, 성심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6, 125면.
 - 2) 이런 분석은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역,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동아아시아, 2003, ‘제3장 신화로서의 신데렐라’ 91~110면 참조.

로 기대한다.

2. 신데렐라, 관음, ‘신발 한 짝’

‘신발 한 짝’이 가장 빈번하게 드러나는 유형의 이야기는 신데렐라型이다. 세계의 신데렐라 이야기들을 연구한 『신데렐라와 소가 된 어머니』에는 여러 유형의 신데렐라 이야기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세계에는 대략 1000종 가량의 신데렐라 이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³⁾, 이 유형의 이야기는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등에 두루 퍼져있는 廣布설화이다. 대체로 ‘I. 학대받는 여주인공, II. 마술적 도움, III. 왕자와의 만남, IV. 정체성 확인, V. 왕자와의 결혼’의 모티프로 구성되며, IV. 정체성 확인은 신발, 반지, 황금사과 따기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⁴⁾

문제는 정체성 확인 방법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 신발 한 짝의 의미이다. 나카자와 신이치는, 레비스트로스의 입론에 따라 오이디푸스 신화에서부터 그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 레비스트로스에 따르면, 오이디푸스는 절름발이인데 이는 그가 대지로부터 솟아나온 인물이라는 표지라는 것이다. 즉, 그는 땅 밑에서 땅 밖으로 나온, 지하와 지상에 걸쳐있는 존재로서 양쪽 다리의 불균형을 표시하는 상징으로 절름발이가 채택되었다는 말인데 이 절름발이 상징은 곧 신발 한 짝의 상징으로 전이될 수 있다. 한쪽 발은 땅 밑에 두고 한쪽 발은 땅위에 걸치는 것처럼, 한쪽 신발은 이쪽 세계에, 한쪽 신발은 저쪽 세계에 두게 되면 신발 한 짝이 한쪽에 남아있음으로써 그가 양쪽에 걸쳐진 존재를 표상하게 된다.⁵⁾

www.kci.go.kr

3) 김정란, 『신데렐라와 소가 된 어머니』, 논장, 2004, 14면 참조.

4) 김정란, 위의 책, 58면.

5)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레비스트로스는 이것이 일련의 오이디푸스 신화들과 관계

신데렐라의 경우, 그 이름대로 아궁이 곁의 ‘재투성이’로서 비천한 세상에 속한 인물이지만, 무도회에 다녀온 이후 질적 비약을 맞게 된다. 마법에 의해 盛裝한 후에야 들어설 수 있는 무도회의 공간은 아궁이의 대극점에 있는 고귀한 세상인 셈이다. 결국, 그 무도회에 신발 한 짝을 떨어뜨린다는 설정은 무도회의 고귀한 세상에 한 짝을 두고, 나머지 한 짝은 다시 아궁이의 비천한 세상에 둔다는 의미이다. 신데렐라형 이야기의 한국판이라고 할 수 있는 <콩쥐팍쥐> 경우도 대체로 콩쥐가 국가의 행사를 보러 나갔다가 냇물을 건너다 그만 신 한 짝을 물에 빠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⁶⁾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는 사건은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있는 냇물 건너 저쪽과 콩쥐가 있는 이쪽을 경계에 두고 벌어지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의 신데렐라는 동양의 불교설화에서 ‘觀音’이라는 상징을 통해 곧잘 구현되어 왔다. 특히 관음이 여성의 모습으로, 여성성을 띠게 될 때 관음은 두 세계에 걸친 중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대체로 다음 몇 단계로 전개된다. 우선 주인공 여성은 매우 아리따워서 모두들 선망하는 혼처이지만 결혼을 거부한다. 많은 남성들이 그 여성과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한다. 결국

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이디푸스는 한쪽 발의 복사뼈가 제 기능을 못해 자유로이 걸어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 그리스에서 전승되던 신화에서 이것은 ‘인간이 대지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에서 오는 모순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대지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지 못한 인간은 한쪽 발이 부자유스러운 상태로 걸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신데렐라도 지하의 망자 세계(그림판)와 야수의 세계(페로판)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던 여성으로서 지상과 대지를 중개할 수 있는 능력 대신에 신발 한 짝을 잃어 자유롭지 못한 걸음을 걸을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추론입니다.”-나카자와 신이치, 앞의 책, 181~182면.

- 6) “그래 인제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아니라, 정말 저거죠? [청중 : 揀擇 받는 거, 간택에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신발을 신구 그 옷을 입구 이러구 나라를 - 간택 받는 데로 가는데, 저는 인제 뽀힐라구 가는 게 아니라 구경 가는 거예요. 그 순진한 사람이 무슨 뭐 자기가 왕비가 되구 싶어서 가는 게 아니예요. 그런데 고만 도랑을 건너뛰다가 그 진신을 잃어버렸어요.” - <콩쥐팍쥐>, 조희웅, 『한국구비문학대계』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787면.

그 모든 조건을 들어주는 한 남성이 그 여성의 배필로 선택되지만 실제로 결혼이 이루어질 시점에서 그녀는 신발 한 짝만 남기고 홀연히 사라진다는 내용이다.

충청남도에 전해지는 <버선바위> 전설은 그러한 예이다. 어떤 고운 여인이 늘 근심에 차 있었다. 돈 많은 사내가 이유를 물으니 그 여인은 부처님을 모실 절을 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다고 했다. 사내는 자신이 그 소원을 들어줄 테니 결혼해달라고 했고 여인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그리하여 절이 다 지어졌을 때, 사내가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가 보았지만 여인은 ‘버선 한 짝’만 남긴 채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버선 모양의 바위가 남았고 또 버선꽃이 피었는데, 그 여인은 관음보살의 現身이었다.⁷⁾ 이런 부류의 이야기는 중국과 일본에서도 전해지고 있어서⁸⁾ 한·중·일 공통의 전승임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여인은 고귀한 세계의 존재인데 잠시 비천한 세계의 존재로 몸을 바꿔 드러냈다는 점에 있어서 신데렐라와 차이를 보인다. 신데렐라가 비천한 세계의 존재인데 곧 고귀한 세계의 존재로 변하는 것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 다 양쪽 세계에 걸친 존재이며, 그 표시로 신발이나

7) 버선 한 짝이 남겨지는 대목을 옮겨보면 이렇다. “절이 다 지어지고 부처님까지 모셔놓게 돼스 보살은 부자하고 살게 될 때가 됐다. 보살은 방에 앉으스 부자보고 들으오라고 해서 들으갔드니 보살은 웃음을 띠고 맞으들었다. 그르디 부자가 자리에 앉이니게 보살은 아무말도 읊이 뒷문을 열고 나갈라고 했다. 부자는 이곳을 보고 ”위대 가오?“하먼스 보살을 붙잡았는디 붙잡는다는 곳이 보신 뒷축을 붙잡았다. 그됐드니 보살은 보신 한 짝을 남기고 기냥 나가 브렸다. (...중략...)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아스 뒤에 있는 바우에 가 보니게 바우 우에는 보신 한 짝이 그대로 놓여 있고 보살은 보이지 안했다. 그 뒤에 이 바우 밑에스는 보신 모양의 꼬시 피게 됐다. 프리 깎지 않은 이 美人 보살은 관세음보살이 사람으로 변신해서 절을 세운 곳이라고 하는디 이 절이 修德寺라는 절이라고 한다. 보살이 사라진 바우는 보신바우라고 지금 부르코 있다.”- <修德寺 보신바위와 보신꽃>, 『韓國口傳說話(임석재전집6)』, 평민사, 1990, 242~243면.

8) 중국의 이야기는 조지프 캠벨, 홍윤희 역, 『신화의 이미지』, 살림, 2006, 387~390면의 <메로의 신부 전설>에서 소개된 바 있으며, 일본의 이야기는 나카자와 신이치, 앞의 책, 56~59면의 <가구야 공주> 또는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는 아가씨’로 소개되며, 두 경우 모두 신화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버선 한 짝을 남겨둔다는 점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문제는 신데렐라는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쳐 고귀한 세계로 옮겨가는 데 비해 <버선바위> 같은 경우는 혼례를 치르기는커녕 돌이 되고 만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따져보면, <버선바위>의 여인이 기실은 고귀한 존재이고 부자 사내가 비천한 존재여서, 그 신분의 우열로만 따지자면 ‘왕자/신데렐라≡여인/사내’의 꼴이다. 신발을 두고 발이 신발에 들어가는 행위를 성행위의 模擬로 생각하여 性的인 의미로 해석하는 일이 잦지만, <버선바위> 설화나 『삼국유사』의 불교 설화 같은 데에는 결혼으로 귀결되지 않는 까닭에 그런 해석이 온당성을 갖기 어렵다.

더구나 돌이 되었다거나, 돌부처가 되었다는 설정은 비극적인 결말이 아니라 그로써 영속성을 얻는 永生을 의미할 수도 있기에 선부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실제로 동화에서도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들은 주인공이 왕자와 결혼하기보다는 하늘의 달이나 별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위치로 옮겨가는 예가 허다하다.⁹⁾ 이는 곧 주인공이 남겨두는 신발 한 짝이 地上/天上, 卑賤/尊貴), 이쪽/저쪽의 대립 가운데 한쪽임을 의미한다. 나머지 신발 한 짝을 가지고 있던 남성과 결혼하여 하나가 되느냐, 한 짝을 남기고 떠남으로써 영원히 다른 세상으로 가느냐의 차이는 서로 대극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기저에 깔린 원리만큼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하겠다.

한·중·일 3국에서 보살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大乘佛敎에서 기인한다. 小乘佛敎처럼 자기 자신의 열반을 염원하는 데 국한하지 않고 못 중생들을 함께 이끌고 가고자 할 때 보살의 관념이 중요하다.

9) 나카자와 신이치는 신데렐라류의 이야기에서 결혼으로 귀결되는 방식은 民話에 국한된 이야기로 신화에서는 그런 마무리가 없다는 데에 주목한다. “오히려 영속하는 것은 파탄한 상태에 있는 쪽이며, 그런 경우의 신화에서 비극적인 파탄을 맞은 주인공들은 하늘의 별이 됩니다. 별이 되어서 영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화는 ‘행복한 결혼’으로 논리를 정지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뭔가 두려운 진실이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나카자와 신이치, 앞의 책, 136~137면,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上求菩提 下化衆生)”는 보살의 誓願은 보살이 부처와 인간 사이에 있다는 분명한 標徵이다. 『三國遺事』에 등장하는 보살, 그리고 그 보살이 사라질 때 남기고 간 신발 한 짝 또한 그 중간자적 위치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신발 한 짝은 무덤에 남기고 다른 한 짝을 걸친 채 西域으로 가는 達磨 또한 그러한 중간자적 역할에 충실한 인물일 것이며, 그것이 또한 불교설화에서 보살이나 高僧이 신발 한 짝을 두고 사라지는 등의 이야기가 빈번한 까닭이기도 하다.

또한 불교 전통에서 보더라도 저 유명한 達磨의 ‘手携隻履’는 하나의 문학적 관습처럼 여기저기 퍼져있다. 그 핵심은 간단하다. 주인공이 신발 한 짝을 손에 들고 어디론가 가기에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더니 “왔던 곳으로 간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주인공이 있던 곳으로 가 보니 주인공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신발 한 짝이 남아있더라는 식으로 하여, 신비로운 異蹟으로 자리매김한다. 이는 高僧傳으로 전하는 여러 고승 설화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며, 실제 『삼국유사』의 신발 한 짝 이야기 또한 여기에서 나왔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문제는 이 경우 또한 단순히 그 인물의 이동 경로만으로 알려주는 표식으로 작동하기보다는 그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는 데 있다. 불교가 본디 聖/俗의 분별 같은 데 집착하지 않고, 그 둘을 뛰어넘는 데 집중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未覺에서 覺으로, 輪廻에서 解脫로 질적 비약을 이뤄내는 과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해낼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3. 『三國遺事』 ‘신발 한 짝’의 聖과 俗

3.1. 자료 개관

『삼국유사』에서 신발 한 짝이 처음 등장하는 예는 『塔像』편의 <南白

月二聖努盼夫得怛怛朴朴>이다.

(가) 옛 노인들이 서로 전하는 내용은 이러하다.

“옛날, 唐 황제가 못을 팠다. 매월 보름 전에 달빛이 휘황하면 못 가운데 산이 하나 있는데 사자처럼 생긴 바위가 꽃 사이로 은은히 비쳐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황제가 畫工에게 명하여 그 모양을 그리게 하여 사람을 보내 천하를 돌면서 찾게 했더니 우리나라에 이르러 이 백월산에 큰 사자바위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산의 서남쪽으로 2천 보 남짓 되는 곳에 세 산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花山(그 산의 몸체가 하나인데 봉우리가 셋이어서 그렇게 이름 붙였다)으로서 그림과 서로 비슷하였다. 그러나 진위를 알 수 없어서 **신 한 짝**을 사자암의 꼭대기에 걸어놓고 돌아와 황제에게 아뢰었다. 그 그림자도 못에 비치어 나타났다. 황제가 기이하게 여겨 산의 이름을 ‘백월산’이라고 했는데, 그런 뒤로는 못 가운데 그림자가 없어졌다.¹⁰⁾

다음으로 역시 『塔像』편의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에도 신발 한 짝이 등장한다. 의상법사가 洛山에서 7일간의 재계를 두 번 거듭한 끝에 관음의 眞身을 친견했는데, 뒤에 원효법사가 의상의 뒤를 쫓아 예불하러 왔으나 실패하는 바로 그 대목이다.

(나) 그 뒤로 원효법사가 의상의 뒤를 쫓아와 예를 올리고자 했다. 처음 남쪽 교외에 왔을 때 논 가운데에 흰옷을 입은 여인이 벼를 베고 있었다. 법사가 희룡조로 벼를 달라고 하자 여인도 장난삼아 벼가 아직 영글지 않았

10) 古老相傳云 “昔唐皇帝，嘗鑿一池，每月望前，月色滉朗，中有一山，崑石如師子，隱映花間之影，現於池中，上命畫工圖其狀，遣使搜訪天下。至海東，見此山有大師子崑，山之西南二千步許，有三山，其名花山(其山一體三首，故云三山)，與圖相近，然未知眞僞，以雙履懸於師子崑之頂，使還奏聞，履影亦現池。帝乃異之，賜名曰白月山(望前白月影現，故以名之)，然後池中無影。—『三國遺事』『塔像』<南白月二聖努盼夫得怛怛朴朴>(『原本 三國史記 三國遺事』, 대제각 영인본(壬申刊本), 1987, 704~705면. 이하 면수만 표기).

다고 답했다. 다시 다리 밑에 왔더니 어떤 여인이 개짐을 빨고 있었다. 법사가 물을 달라고 하자 여인은 더러운 물을 떠서 그에게 바쳤다. 법사가 그 물을 쏟아버리고 다시 냇물을 떠서 마셨다. 이때 들 가운데 소나무 위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그만두시오, 화상.”이라 하고는 홀연히 자취를 감추어 보이지 않았다. 그 소나무 밑에는 **벗어놓은 신 한 짝**이 있었다. 법사가 절에 도착해보니 관음보살 자리 밑에 또 **앞에서 본 벗어놓은 신 한 짝**이 있었다. 그제야 전에 만난 여인이 聖女 곧 眞身임을 알았다. 이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관음송이라 불렀다. 법사가 그 신성한 굴에 들어가 진신의 얼굴을 뵈려 했으나 풍량이 크게 일어나 들어가지 못하고 떠났다.¹¹⁾

『義解』 편의 <二惠同塵>에도 신발 한 짝이 등장한다.

(다) 얼마 후 혜숙이 갑자기 죽어서 마을 사람들이 耳峴의 동쪽에 장사지냈다. 마을 사람 중에 이현(어떤 곳에서는 ‘검현’이라고도 한다)의 서쪽으로부터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길에서 혜숙을 만나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 그는 “여기에서 오래 살았으니 다른 데로 가보려고 한다.”고 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져 반 리쯤 가더니 구름을 타고 갔다. 그 사람이 고개 동쪽에 이르러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아직 흠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사유를 이야기하여 무덤을 파헤쳐 보았더니 **짚신 한 짝**만이 있을 뿐이었다. 지금 안강현 북쪽에 혜숙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혜숙이 살았던 곳이며, 浮圖도 거기에 있다.¹²⁾

11) 後有元曉法師，繼踵而來，欲求瞻禮，初至於南郊水田中，有一白衣女人刈稻。師戲請其禾，女以稻荒戲答之，又行至橋下，一女洗月水帛，師乞水，女酌其穢水獻之，師覆棄之，更酌川水而飲之。時野中松上，有一青鳥，呼曰：“休醒<翻>和尚”，忽隱不現，其松下有一隻脫鞋。師既到寺，觀音座下，又有前所見脫鞋一隻，方知前所遇聖女乃眞身也。故時人謂之觀音松，師欲入聖窟，更觀眞容，風浪大作，不得入而去。-『三國遺事』『塔像』，<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713~714면，< > 안은 원문에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글자).

12) 未幾宿忽死，村人輿葬於耳峴(一作劍峴)東。其村人有自峴西來者，逢宿於途中，問其何往，曰：“久居此地，欲遊他方爾。”相揖而別。行半許里，躡雲而逝。其人至峴東，見

또, 『感通』편의 <郁面婢念佛西昇>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라) 『승전』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동량팔집이란 사람은 관음보살의 현신이다. 무리 천 명을 모아 두 패로 나누어 한 패는 힘쓰는 일을 하게 하고 한 패는 정진하여 修道하게 했다. 일하던 패의 우두머리가 戒를 얻지 못하고 畜生道에 떨어져 부석사의 소가 되었는데, 일찍이 불경을 싣고 가다가 경전의 힘을 빌려 아간 귀진의 계집종으로 태어나 이름을 ‘옥면’이라 하였다. 옥면이 불일을 보러 하가산에 갔다가 꿈에 감응하여 불도를 닦을 마음이 생겼다. 아간의 집은 혜숙법사가 세운 미타사에서 멀지 않아서 아간은 언제나 그 절에 가서 염불을 하곤 했는데 계집종도 따라가 마당에서 염불하였다 한다.

이러하기를 9년 되는 을미년 정월 21일에 예불하다가 집의 대들보를 뚫고 나갔다. 소백산에 이르러 **신발 한 짝**을 떨어뜨려 그 자리에 보리사를 세웠으며 산 밑에 이르러서는 그 옥신을 버려 거기에 제2보리사를 짓고 그 전각에 ‘**劬面登天之殿**’이라 표시했다. 지붕의 용마루에 뚫린 구멍이 열 아홉 가량 되었는데 폭우나 폭설에도 젖지를 않았다. 그 뒤에 일 벌이기를 좋아하는 자가 금탑 한 개를 분떠 만들어 구멍에 맞추어 承塵 위에 모시고 그 이적을 기록하였는데 여태껏 그 榜과 탑이 남아있다.¹³⁾

이상의 네 자료는 신기하게도 모두 신발 한 짝을 통해 聖의 향방을 알

葬者未散，具說其由，開塚視之，唯芒鞋一隻而已。今安康縣之北，有寺名惠宿，乃其所居云，亦有浮圖焉。 - 『三國遺事』 『義解』 <二惠同塵> (769~770년).

- 13) 按僧傳，棟梁八珍者，觀音應現也。結徒有一千，分朋爲二，一勞力，一精修。彼勞力中知事者，不獲戒，墮畜生道，爲浮石寺牛，嘗馱經而行，賴經力，轉爲阿干貴珍家婢，名郁面，因事至下柯山，感夢遂發道心。阿于干家距惠宿法師所創彌陀寺不遠，阿干每至其寺念佛，婢隨往，在庭念佛云云。如是九年，歲在乙未正月二十一日，禮佛撥屋梁而去。至小伯山，墮一隻履，就其地爲菩提寺，至山下棄其身，卽其地爲二菩提寺，榜其殿曰，劬面登天之殿。屋脊穴成十許圍，雖暴雨密雪不濡濕。後有好事者，範金塔一座，直其穴，安承塵上，以誌其異，今榜塔尙存。 - 『三國遺事』 『感通』 <郁面婢念佛西昇> (824~825년).

린다. 자료(가)는 백월산이라는 장소가 중국의 황제가 그 소재를 파악하려 애를 썼던 성스러운 곳임을 드러낸다. 그러나 정말 聖所인지 확신이 서지 않자 신발 한 짝으로 徵驗하여 성소임을 확인시켜주고 ‘백월산’으로 명명하기에 이른다. 이 이야기의 지명에 등장하는 ‘사자’와 ‘달’이 부처와 연관됨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비해 자료(나)는 신발 한 짝이 聖所라는 장소보다는 성스러운 인물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표지로 쓰인다. 연이 어 나오는 신발 한 짝이 관음보살상 밑에 놓임으로써 그 신을 신었던 사람이 바로 관음보살임을 일러주는 것이다. 자료(다)는 신성한 인물이 죽어 묻힌 곳을 파보니 시신이 없고 쉰신 한 짝만 남은 사연을 전하고 있다. 達磨의 고사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이야기는, 죽어서 장사를 지낸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던 異蹟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때의 신발은 곧 혜숙이 이승에 남기고 간 흔적이면서 그가 신이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 자료(라)는 성스러운 존재가 육신의 굴레를 벗고 超脫하는 장면을 그려낸다. 신발이란 본시 땅을 걸어 다닐 때 필요한 물건이니 題名에 있는 대로 西昇하는 인물에게는 소용이 없어졌고 그것이 그대로 땅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넷은 신발 한 짝으로 두 세계에 걸쳐있는 인물, 혹은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이동하는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준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다. 특히, 신발 한 짝의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그 구체적 실체가 여실히 드러날 것이다.

3.2. 聖·俗의 표출양상과 그 의미

『삼국유사』의 네 자료는 신발 한 짝이 중간이며 경계이고, 또 두 세계를 매개한다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차별성을 보인다. 먼저 자료(가) <南白月二聖努盼夫得怛怛朴朴>에는 신발 한 짝이 眞僞를 가리는 유용한 수단으로 쓰인다. 중국의 황제가 못을 하나 뚫는데 그 못에는 달빛이 밝을 때면 산이 하나 비취진다고 했다. 그럼자란 본래 실체가

있어야 생기는 법이지만, 그 주변에는 그런 산이 없기 때문에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 그 산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 했다. 그림자는 실물이 있을 때 그 빛이 비추어진 반대편에 생기는 검은 부분이므로, 그것이 실체에 대응하는 이미지로 사용되는 예는 허다하다. 그런데 이 빛이 달[月]일 때, 달빛이 통상 세상에 遍在하는 부처님의 존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달빛에 비친 그림자란 부처님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증거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림자 이전에 등장하는 몇 가지 상징을 만나게 된다. 하나는 달이고 또 하나는 그림자로 비추어진 사자바위이다. 달밤에 사자바위 그림자가 드러난다는 것은 달빛이 먼저 사자바위에 비췄다는 뜻이다. 사자바위는 달빛이 쏘인 진짜이고, 그 그림자는 진짜의 이미지일 뿐이다. 사자가 百獸의 帝王으로 그 앞에 모든 동물이 무릎 꿇는 존재이고 보면 그 또한 모든 진리의 꼭대기에 서는 부처를 상징할 것으로 어렵잖게 유추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저 유명한 아쇼카의 四獅子像은 부처가 불법을 깨친 후 자신의 진리를 전하러 사방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그려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이야기 속의 ‘달’은 1차적으로 부처 혹은 부처의 뜻이며, 사자바위는 그것을 가지고 전하는 상징이고, 사자바위의 그림자는 사자바위에 의해 또 다시 전해지는 표시이다. 즉, 달빛이 비추어 사자바위로, 사자바위가 드리운 그림자로 계속 미끄러지는 형국인 것이다.

이 때문에 ‘달빛’이 비추어진 곳은 그 어디나 불국토이긴 하겠지만, 그 달빛을 직접적으로 받은 곳의 우월성은 익히 짐작할 만하다. 이 점에서 사자암이 있는 백월산은 특별한 聖地가 된다. 황제가 ‘백월산’이라 명명한 것은 그러한 사실은 인정했다는 뜻이며 그 이후로는 변고가 사라졌다고 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이 행사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에서 ‘신발 한 짝’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그것이 ‘달빛→사자바위→사자바위 그림자’의 순서로 그 성스러움이 옮겨가는 과정을 증명하는 데 쓰였다는 점이 분명하다. 진위를 알 수 없게 되자 신발 한 짝을 걸

어두어 그 그림자에 신발 한 짝 모양이 나오는 것을 보고 확신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면 신발 한 짝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중국에서 온 사신이 다른 물건이 아닌 신 한 짝을 걸어둔 것은, 신데렐라 이야기가 그랬듯이 그 신의 그림자가 비출 때 진짜 자신이 걸어둔 신 한 짝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당연히 신발 한 짝은 사자바위에 걸어두고 나머지 한 짝은 다시 중국으로 가지고 들어갔을 것이며, 이 점에서 신발이 옮겨간 방향은 신라→중국이 된다. 본시 불교가 서역에서 생겨나 東道를 타고 옮겨오으로써 중국→신라의 순서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이 신발 한 짝은 그것을 역전시킴으로써 그곳이 바로 聖地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때, 자료(나)는 자료(가)의 역순이다. 부처의 靈力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방식이 아니라, 낮은 데에 머물던 영력이 다시 본연의 자리로 회귀하는 형국인 것이다. 이야기에는 두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모두 미천한 모습이다. 앞에 등장하는 여인은 논에서 추수를 하는 여인이고, 뒤에 등장하는 여인은 냇물에서 개짐을 빼는 여인이다. 농사일에 나서는 것이 귀족이라는 표시가 아니기도 하지만 밭농사와는 달리 논농사는 물이 많은 곳에서 일해야 하는 까닭에 여성이 들어서기 쉽지 않은 곳이어서 여인의 지위를 짐작케 한다. 개짐 빨래 역시 밤에 남이 안보는 곳에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흰히 보이는 냇가에서 한다는 자체가 고귀함과 거리가 멀다. 물론 농사나 월경이나 모두 여성의 生成性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풍요와 연관 지을 여지는 크지만¹⁴⁾, 문면에 드러난 여인의 모습이 지나치게 卑俗하게 그려진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원효는 쉽게 희롱을 했고 그 本色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 이야기에서 신 한 짝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본 모습을 확인시켜 준다. 이는 자료(가)에서 중국의 황제가 신라의 백월산이 진짜 聖山임을

14) 이런 견해는 길태숙·윤혜신·최선경, 『삼국유사와 여성』, 이회문화사, 2003, 240~245면 참조.

확인시켜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이야기를 가만 살펴보면 그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위의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에서 보듯이, ‘앞에서 본 벗어놓은 신발 한 짝(前所見脫鞋一隻)’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이를 “앞에서 본 벗어놓은 신발 한 짝의 나머지 다른 한 짝”으로 해석할 경우 신발 한 켤레를 차례로 벗어놓은 것이 되겠지만¹⁵⁾, 신발 한 짝이 등장하는 여러 서사의 관례에 비추어 동일한 신 한 짝이 옮겨오는 쪽으로 풀이하는 게 온당하게 여겨진다. 즉, 먼저 신발 한 짝을 발견하고 나중에 나머지 신발 한 짝까지 발견해서 그 행적을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본 신발 한 짝이 다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신발이 원효의 발걸음을 따라와 다시 앞에 서 있는 방식으로, 결국 그 신발이 놓인 마지막 지점이 관음상 앞이었으니 그 여인이 관음의 화신이었음을 알았다는 게 이야기의 골자이다. 이 또한 聖地임을 깨쳤다는 자료 (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이 이야기에 드러나지 않는 나머지 신발 한 짝의 행방이다.

미천한 여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났던 관음이 俗人을 깨쳐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설정에서, 나머지 신발 한 짝은 관음이 觀音像 안으로 돌아갈 때 함께 들어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곧 신발 한 짝은 塵世에 둔 채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끌고 淨土에 坐定했음을 의미하며, 그로써 관음이 塵世와 淨土에 걸쳐있는 존재임을 드러낸다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따라가 볼 때, 원효가 의상과 달리 관음의 眞身을 보지 못한 것은 자신은 깨끗한데 상대는 더럽다고 여긴 까닭이다. 未覺의 상태에 있는 원효를 覺의 상태에 이른 관음보살이 나타나 깨치는 형국인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간 힘들게 농사짓고 이제 막 추수하는 여인에게 가서 일 한 번 하지 않은 주제에 수확한 것을 거저 달라고 하고, 남에게 보이는 자체가 부끄러울 개짐을 빼는 여인 앞에 가서 뻔뻔하

15) 예를 들어, 고운기의 번역에서는 “절에 도착하여 법사는 관음상이 앉은 그 자리 아래 다른 가죽신 한 짝이 있음을 보았다.”(일연, 고운기 역, 『삼국유사』, 홍익출판사, 2001, 253면. 밑줄 필자)고 풀이했다.

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일이 사실은 교만의 극치이다. 상대를 내 아래의 존재로 보았을 때, 혹은 나는 깨끗한데 상대는 더럽다고 여길 때 나올 수 있는 처사이며, 이 점에서 파랑새가 나타나 “그만 두시라.”고 조롱했다. 반면 의상은 그 이전에 7일간의 재계를 통해 신이한 영험을 겪었지만 거기에 교만해지지 않고 다시 또 7일간의 재계를 함으로써 진신을 친견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¹⁶⁾

塵世에 걸쳐 있는 성스러운 존재라는 점에서 자료(다)는 자료(나)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 있다. 제목부터 ‘二惠同塵’일 정도로 두 인물 모두 塵世에서 살아가기를 꺼리지 않아, 주지하는 대로 이 이야기가 和光同塵이라는 주제를 구현하는 데 매우 적합한 틀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바로 그 ‘同’에 있다. (다) 또한 聖의 몸으로 方便上 俗에 잠시 거쳐하여 그러한 聖俗一如의 경지를 보인다고 하겠지만 자료(다)의 내용은 聖과 俗에 時差를 두지 않음으로써 확실한 차별성이 있다. 앞서 인용한 자료(다)의 앞부분부터 살펴보면 그 내용이 또렷이 드러난다.

공이 매우 기이하게 여겨 조정에 돌아가 아뢰니 진평왕이 듣고 사자를 보내 불러 맞으려 했다. 혜숙은 여자의 침상에 누워 마치 잠자는 듯 보였다. 궁궐의 사자가 그것을 비루하게 여겨 7~8리가량 돌아오다가 길에서 스님을 만나 어디서 오는 길이나고 물었다. 혜숙이 대답하기를 “성안의 시주 집에 7일 齋를 갔다가 파하여 돌아오는 길입니다.”라 했다. 사자가 이 말을 임금께 아뢰니 다시 사자를 보내 그 시주 집에 알아보도록 했더니 사실이었다.¹⁷⁾

16) 이 대목의 해석을 두고 문면대로 실패했다고 보는 김열규와 백의여인을 실제 보았으므로 도리어 성공했다고 보는 조동일의 견해가 엇갈리지만, 둘의 대비로 볼 때 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김열규, 『‘낙산이성’과 그 신비체험의 서술구조』, 『삼국유사연구(상)』,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1983 ; 조동일, 『불교설화에서 본 송고와 비속』,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1990.

17) 公甚異之, 歸奏於朝. 眞平王聞之, 遣使徵迎, 宿示臥婦床而寢. 中使陋焉, 返行七八里, 逢師於途. 問其所從來, 曰: “城中檀越家, 赴七日齋, 席罷而來矣.” 中使以其語達於上,

이 대목에 혜숙이라는 인물이 동일인물로 나오기는 해도 두 명의 인물이 벌이는 두 가지 대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는 여자와 침상에 누워 있는 파계승의 모습이며, 또 하나는 7일간의 齋를 성심껏 모시고 오는 신실한 모습이다. 그런데 이 둘은 한 인물이 공간을 옮겨가며 시차를 두고 일어나지 않고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점이 신기하다.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존재라면 육신의 틀을 벗을 수 없기에 동시에 두 공간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혜숙은 두 공간에서 서로 다른 일을 했다고 했다. 이는 혜숙이 어느 한 공간에 매이지 않는 성스러운 존재임을 드러내는 장치이다.

자료(다)의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다. 죽은 인물이 되살아나 다른 길로 갔다기보다는 한편에서는 죽어서 장사를 지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이 세상 구경을 실컷 했으니 다른 세상 구경을 하겠다고 떠나는 모습을 동시에 드러내준다. 혜숙이 죽자 사람들이 장사를 지냈는데 시신을 묻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혜숙은 몸을 드러내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이때 사람들이 고개의 동쪽에 장사를 지냈고, 혜숙은 서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점은 그가 서방세계, 곧 극락으로 가고 있다는 표지이다. 즉, 신발 한 짝은 동쪽 언덕에 남긴 채 다른 한 짝은 서방으로 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和光同塵이 극적으로 구현된다. 외형상 塵世에서 淨土로 옮겨가는 듯하지만, 기실은 진세에 있으면서 동시에 정토에 있을 수 있는, 나아가 진세가 곧 정토일 수 있다는 서사인 셈이다.

자료(라)도 자료(다)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서방 정토로 나아가는 과정이 그려진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신발 한 짝이 땅 밑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다는 점일 것이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곧 이어 육신까지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 이야기가 輪廻를 그려내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변이로 보인다. 자료에서 보듯이 1천 명의

우리가 둘로 갈려 한 때는 힘을 써 일을 하고 한 때는 修行을 했는데 결국 일을 하는 때의 책임자가 제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여 그 업보로 畜生道에 떨어져 소가 되었으며, 그 소는 불경을 싣고 다닌 공으로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여 수행의 기회를 얻어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노비의 몸이 되어 곤경에 빠졌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고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윤회를 벗어나 해탈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즉 자료(다)가 塵世와 淨土가 한 가지임을 설파하는 데 중심을 둔다면, 이 자료(라)는 수행을 통해 塵世를 벗어나는, 수직적 초월에 중점을 둔다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강력한 근거는 이야기 속에서 계속적으로 신분을 강조하는 점이다. 이야기의 시작이 “아간 벼슬을 하는 귀족 귀진의 집에 계집 종 옥면이 있었다.”는 식으로 둘의 主從 관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주인인 귀진이 절에 들어가 수행하게 되자 그를 侍從하기 위해 갔던 옥면이 손바닥을 꿰뚫어 잠을 쫓아가며 수행하여 먼저 깨치는 줄거리인데, 『僧傳』에서는 귀진이 옥면의 그 성스러운 일을 기리기 위하여 자신의 집을 喜捨하여 절로 만들고 田民을 바쳤다고 했다. 제목이 시사하는 대로 ‘西昇’의 昇은 다분히 상승 이미지를 갖는다. 이쪽과 저쪽의 수평 이동이 아닌, 윤회가 있는 공간에서 윤회가 없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신발을 떨구고 육신마저 떨어진 후 완벽한 해탈을 이루는 이야기이다. 특히 옥면이 昇天하면서 뚫어졌다다는 구멍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접점으로서 성스러움이 발현되는 深重한 상징이다.¹⁸⁾

‘신발 한 짝’이 등장하는 네 이야기는 그렇게 같지만 다르다. 어느 것이

18) 엘리야데에 따르면, 가장 오래된 옛날의 성전은 지붕이 없거나 초월계와의 교섭을 상징하는 dome 형식이었다고 한다. 옥면이 남긴 구멍을 메우지 않고 신성시한 것 또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코스모스-집-인간 신체의 등질화를 이야기 할 때, 우리는 다시 ‘지붕 부수기’의 보다 깊은 의미를 보게 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가장 오랜 옛날의 성전은 지붕이 없거나 아니면 한 지평에서 다른 지평으로의 돌파를, 초월계와의 교섭을 상징하는 ‘돔(dome)의 눈’, 즉 지붕의 구멍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언급하려고 한다.”-엘리야데, 이동하 역, 『聖과 俗-종교의 본질』, 학민사, 1983, 45~46면.

든 聖과 俗, 혹은 覺과 未覺의 가운데 위치하지만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준거에 따라 차별화되는데, 그 하나는 신발 한 짝으로 드러나는 구체적 대립물이고, 둘째는 그 대립물의 의미며, 셋째는 대립물의 통합 방향이다.

첫째, 대립물로 보자면, 자료(가)는 신라/중국, 자료(나)는 관음/여인, 자료(다)는 세속의 혜숙/수행하는 혜숙, 자료(라)는 해탈한 옥면/윤회하는 옥면이다. 둘째, 그 각각의 대립물이 지닌 의미 또한 같리는데, 자료(가)는 진짜(실물)/가짜(그림자), 자료(나)는 초월적 존재/미천한 여인, 자료(다)는 정토/진세, 자료(라)는 해탈/윤회이다. 셋째, 대립물의 통합 양상은 자료(가)는 聖에서 俗으로 이동하며, 자료(나)는 卑俗함이 곧 高貴함을 깨쳐주고, 자료(다)는 정토와 진세가 동시에 공존하며, 자료(라)는 윤회를 벗고 열반하는 쪽으로 귀결된다. 물론 불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느 聖/俗의 구분과는 차별성이 있겠으나, 범박함을 무릅쓰고 우리가 살아가는 보통 세상을 俗,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聖으로 규정할 때 이 넷은 신발 한 짝을 통해 결국 다음의 네 가지 도식이 도출된다.

첫째, 聖이 俗化한다. (최초의 달빛이 짚신으로, 짚신 그림자로 점차 옮겨간다.)

둘째, 俗이 곧 聖이다. (신발 한 짝은 미천한 여인의 발에, 한 짝은 관음의 발에 있다.)

셋째, 俗이면서 聖이다. (혜숙의 신발 한 짝은 땅 밑에 있으면서 땅 위에서는 서쪽으로 간다.)

넷째, 俗이 聖化한다. (신발을 떨어뜨리며 서방세계로 오른다)

신화에서 聖과 俗은 언제나 대립적으로 존재했지만, 사실은 통합되어야 하는 대립이었다. 그 둘은 위에서 아래로, 곧 聖에서 俗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래에서 위로, 곧 俗에서 聖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俗이 곧 聖임을 순간적으로 깨치는 것에 의해 聖俗一如가 구현되기도 하고, 동시에 聖이면서 俗인 초월의 논리가 구현될 수도 있다. 신화 바깥의 현실세계에서는 A는 언제나 A이며,

A는 ~A가 아니고, A이면서 ~A일 수는 없지만, 신화에서는 A는 ~A로 되기도 하고, ~A가 A가 되기도 하며, A가 곧 ~A이기도 하고, ~A이면서 동시에 A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變轉과 統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세계를 건너뛰고, 옮겨다주며, 비끄러매줄 수 있는 중개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살핀 『삼국유사』의 설화에서는 그 중개의 업무를 신발 한 짝이 맡아서 양쪽을 견고하게 엮어매어 온전함을 되찾고 있다.

어느 작품이나 신발 한 짝씩으로 표상되는 두 세계를 통합하거나, 불필요한 分別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力說한다. 가령 자료(가)에서 실물과 그림자는 서로 땀래야 땀 수가 없는 관계이다. 실물이 없다면 그림자가 남지 않고, 빛이 비추는 한 그림자가 없는 것은 실체가 없는 헛것이기 때문이다. 자료(나)는 미천한 여인의 삶에서 관음의 자비로움을 찾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사실은 속되다고 생각한 그것이 곧 성스러운 것임을 드러낸다. 『삼국유사』의 원문에 보면 나오듯이 의상 이야기에서 관음을 ‘白衣大士’로 그려놓은 것이 원효 이야기에서는 ‘白衣女人’으로 드러남으로써 사실은 그 둘이 동일한 인물임을 내비친다. 白衣로 드러나는 존재가 하나는 성스러운 관음으로, 하나는 범속한 女人으로 나타났으므로 그 둘은 본래의 그대로 하나로 통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자료(다) 또한 표면상으로는 땅밑과 하늘의 대극적인 공간에 드러나긴 하지만 등장인물 혜숙이 和光同塵의 이상을 실현하는 통합체임이 분명하다. 자료(라)는 (다)와는 달리 時差를 두며 질적 전환을 피하면서 未覺의 존재에서 해탈의 깨침을 얻는 존재로 탈바꿈하는데, 문제는 앞서의 수련이 없었다면 깨침이 없으며 깨침이 있으려면 수련이 필요하기에 그 둘 역시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결국, 이들 모두는 양면에 선 대립물이 둘이면서 하나인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 둘을 중개하는 신발 한 짝을 내세운 것이다.

하나였던 것이 둘이 되면 필연적으로 다시 하나로 되고싶은 욕구가 있다. 신발 한 짝을 이쪽에 두고 한 짝은 저쪽으로 가져간다는 설정은, 우선 그런 근원적인 욕구를 내비춘다. 그러나 여기에 덧붙태어 더욱 중요한 일은 그렇게 둘로 나뉘면 양쪽이 대등하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힘의 불균등이 야기된다는 점이다. 자료(가)의 중국과 신라, 자료(나)의 보살과 인간, 자료(다)의 光과 塵, 자료(라)의 覺과 未覺은 수직적 불균등의 사례이다. 이때 신발 한 짝은 단순한 통합을 넘어, 그런 불균등을 넘어설 만한 단서를 제공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힘의 우열조차 단번에 無化시켜버린다. 그리하여 다시 온전해진 하나를 이루는 것, 위아래 구분 없이 평등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의 핵심 주제이다.

4. 마무리

이 글은 『三國遺事』에 등장하는 ‘신발 한 짝’의 의미를 해명하기 위해 씌어졌다. 신발 한 짝은 신성한 존재나 기운이 속계에 드러나거나 속계의 존재가 신성한 존재로 전이할 때 드러난다는 점에서, 聖과 俗의 경계에서 그 둘이 어떻게 중개되어 결국 그 둘이 하나로 합치되는지 밝힌 것이다.

첫째, ‘신발 한 짝’의 신화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신발 한 짝이 신데렐라형 이야기에서 흔히 신원 확인의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근원적으로 따지자면 한쪽 신발은 이쪽 세계에 한쪽 신발은 저쪽 세계에 뒹으로써 그 주인이 양쪽에 걸쳐진 존재를 표상하게 됨을 알았다. 특히 우리 불교설화에서는 ‘관음’이라는 상징을 통해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고 위로는 부처의 깨침을 추구하는 중간자적 존재로 드러날 때 신발 한 짝이나 버선 한 짝 같은 식의 상징물이 사용되는데, 이런 양상은 『삼국유사』 소재 설화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둘째, 『삼국유사』에서 신발 한 짝이 나오는 자료를 살폈다. 『塔像』편의 <南白月二聖努盼夫得怛怛朴朴>,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 『義解』편의 <二惠同塵>, 『感通』편의 <郁面婢念佛西昇> 등 네 자료에 드러나는데, 신발 한 짝으로 두 세계에 걸쳐있는 인물, 혹은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이동하는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준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다.

셋째, 신발 한 짝으로 표출되는 聖俗의 표출양상에 대해 살폈다. <南白月二聖努盼夫得怛怛朴朴>은 신발이 옮겨간 방향이 신라에서 중국이 되게 함으로써 본시 불교의 전래방향을 역전시켜 신라가 聖地로 자리매김한다.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에서는 신발 한 짝은 塵世에 둔 채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끌고 淨土에 坐定하는 서사를 통해 관음이 塵世와 淨土에 걸쳐있는 존재임을 드러낸다. 또, <二惠同塵>은 신발 한 짝은 동쪽 언덕에 남긴 채 다른 한 짝은 서방으로 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和光同塵이 극적으로 구현된다. 끝으로, <郁面婢念佛西昇>은 제목이 시사하는 대로 다분히 상승 이미지를 갖는데, 신발을 떨구고 육신마저 떨어낸 후 완벽한 해탈을 이루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개별이야기들은 신발 한 짝으로 드러나는 구체적 대립물, 그 대립물이 상징하는 의미, 대립물의 통합 방향에 따라 달랐다. 그 대립물에서 네 자료는 신라/중국, 관음/여인, 자료(다)는 세속의 해속/수행하는 해속, 해탈한 육면/윤회하는 육면으로 표출되었다. 또, 그 대립물들은 진짜(실물)/가짜(그림자), 초월적 존재/미친한 여인, 정토/진세, 해탈/윤회의 의미를 띠었다. 그리고 이 대립물의 통합 양상은 차례로 ‘聖에서 俗으로 이동’하며, ‘卑俗함이 곧 高貴함임’을 깨쳐주고, ‘정토와 진세의 공존’, 윤회를 벗고 열반하는 등의 차별성을 보인다.

신발이 한 짝으로만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신발 한 짝을 등장 시킴으로 해서 나머지 한쪽과의 통합을 갈구하게 되는데, 통합을 이룸은 물론 양자 사이에 있던 힘의 불균등을 해소하여 위아래 구분 없이 평등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의 핵심 주제이다. 이상의 논의결과들이 다른 설화작품들로까지 논의가 확장되어 정교화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일연, 『三國遺事』, 『原本 三國史記 三國遺事』, 대제각 영인본(壬申刊本), 1987.
_____, 고운기 역, 『삼국유사』, 홍익출판사, 2001, 253면.
<修德寺 보신바위와 보신꽃>, 『韓國口傳說話』(임석재전집6), 평민사, 1990,
242~243면.
<콩쥐팍쥐>, 조희웅, 『한국구비문학대계』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787면.
길태숙·윤혜신·최선경, 『삼국유사와 여성』, 이회문화사, 2003, 240~245면.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1, 100~102면.
_____, 『‘낙산이성’과 그 신비체험의 서술구조』, 『삼국유사연구(상)』, 영남
대민족문화연구소, 1983, 107~118면.
김정란, 『신데렐라와 소가 된 어머니』, 논장, 2004, 14면, 58면.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역,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동아시아, 2003, 91
~110면.
남정희, 『신 한 짝의 상징적 의미』, 『반교어문연구』27집, 반교어문학회, 2009,
311~341면.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1990, 235~264면.
최정선, 『관음설화의 여성화 전략과 형상화의 의미』, 『인간연구』 10호, 성심
대학교인간학연구소, 2006, 125면.
엘리아데, 이동하 역, 『聖과 俗 -종교의 본질』, 학민사, 1983, 45~46면.
조지프 캠벨, 홍윤희 역, 『신화의 이미지』, 살림, 2006, 387~390면.

논문투고일: 2013.4.11. 심사완료일: 2013.5.21. 게재확정일: 2013.6.10.

Abstract

'A Shoe' of the *Samkookyusa*: A Boundary between Sacred and Profane

Lee, Kang-yeop

This article explores the meaning of 'a shoe' of the *Samkookyusa* with respect of the boundary between the Sacred and Profane.

Firstly, I examine the mythological meaning of 'a shoe.' The shoe like the one in Cinderella story represents its owner's existence involved in both worlds. In our Buddhism fables, when she saves the world and, at the same time, pursues the enlightenment of Buddha, such shoe has been used as a symbol of the Buddhist Goddess of Mercy and thus it represents the mediator between ordinary people and Buddha.

Secondly, I examined four chapters of the *Samkookyusa* where such shoe is described: <Two Saints of Nambeokwolsan, Nohilbudeuk and Daldalbakbak> and <Kwanem and Jeongchui, two saints of Naksan and Choshin> of the section 'Topsang' and <Hyesook and Hyegong live together in secular society> of the section 'Uihae' and <Wookmyeon, a female servant, goes up the heaven> of the section 'Kamtong.' The shoe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a person either being involved in both worlds or moving from this world to that world. In the story of <Two Saints of Nambeokwolsan, Nohilbudeuk and Daldalbakbak>, such shoe moves from Silla to China, which makes Silla as a sacred

place of propagation of Buddhism. In the story of <Kwanem and Jeongchui, two saints of Naksan and Choshin>, the character leaves one of his shoes in secular world but, wearing the other one of his shoes, he walks up to the heaven and settles there, which indicates he is a sort of mediator between the heaven and the world. In addition, <Hyesook and Hyegong live together in secular society> describes a story where, leaving one of his shoes in the eastern hill, the character takes the other shoe until he arrives at the heaven, which achieves dramatic realization of integrating the Sacred and Profane. <Wookmyeon, a female servant, goes up the heaven> is a story about a woman who reaches complete nirvana by taking off her shoes and even her body.

The main theme of these stories is that we should long for the integration and thus return to the world of equality by resolving inequality between one and its counterpart just as a shoe cannot serve its function without the other shoe.

Key words : a shoe, *amkookyusa*, myth, Cinderella, Kwanem, Sacred, Profane